

유란시아서

<< [제 20 편](#) | [부분](#) | [내용](#) | [제 22 편](#) >>

제 21 편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

21:0.1 (234.1) **창조 아들은** 시공에서 지역 우주의 창조자요 통치자이다. 지역 우주를 창조하는 이 통치자는 이중 기원을 가졌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특성을 몸에 담고 있다. 그러나 **창조 아들**들은 각자 서로 다르고, 각자 성격만 아니라 성품이 독특하다. 각자가 기원이 있는 완전한 신의 이상(理想)이 “하나만 얻은 **아들**”이다.

21:0.2 (234.2) 이 높은 **아들**이 한 지역 우주를 조직하고, 진화시키고, 완성하는 방대한 작업은 언제나 **우주의 아버지**의 승인을 계속 얻는다. **창조 아들과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관계는 감동적이고 최상급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신 어버이가 신다운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필사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름답고 거의 신다운 그 사랑의 근원이 된다.

21:0.3 (234.3)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미가엘**로서 성격화된다. **파라다이스**에서 자신의 우주를 지으려고 떠나갈 때, 그들은 **창조자 미가엘**로서 알려진다. 최상의 권한을 얻어 안정되었을 때, 그들을 **주 미가엘**이라 부른다. 때때로 우리는 너희 **네바돈** 우주의 군주를 **그리스도 미가엘**이라 언급한다. 언제나, 언제까지나, 그들은

“**미가엘**의 서열”을 좇아서 군림하며, **미가엘**은 그들의 계급과 성품을 지닌 첫째 **아들**의 명칭이다.

21:0.4 (234.4) 최초의 **미가엘**, 곧 처음 낳은 **미가엘**은 결코 하나의 물질 존재로서 육신화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중앙 창조의 바깥 구체들로부터 가장 안쪽 회로까지 진행하면서, **하보나**의 일곱 회로에서 영적 생물이 올라가는 체험을 일곱 번 거쳤다. **미가엘** 서열은 한쪽 끝에서부터 다른 끝까지 대우주를 알고 있다. 시공의 어느 아이가 겪은 기본 체험도 **미가엘**들이 몸소 참여해 보지 않은 것이 없다. 사실 그들은 신다운 성품만 아니라 너희의 성품, 즉 가장 높은 자로부터 가장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품을 취한 자이다.

21:0.5 (234.5) 최초의 **미가엘**은 1차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만물의 중심에서 협의하려고 모일 때 주관하는 우두머리이다. 영원한 섬에서, 부모가 계신 가운데 모여서, 온 우주의 통일과 안정의 진보에 관하여 심의하는 **창조 아들** 15만 명의 특별 집회를 우주에 방송하는 것을 우리가 **유버르사**에서 기록한 지 오래지 않다. 이것은 **군주 미가엘**, 곧 일곱 번 수여한 **아들**들로 이루어진 선택된 집단이었다.

1. 창조 아들의 기원과 성품

21:1.1 (234.6) 영원한 아들 안에서 절대적 영적 관념 작용이 무르익어서 **우주의 아버지**의 총만한 절대 성격 개념과 마주칠 때, 그러한 창조적 연합이 마침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절대로 동일한 영과 그렇게 무한히 하나된 성격 개념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그때 거기서 어느 쪽 무한한 **신**의 성격이나 특권에 아무 손실이 없이, 새롭고

독창적인 한 **창조 아들**이 완전히 자란 존재로서 번쩍 나타난다. 이 **창조 아들**은 완전한 이상과 강력한 생각이 하나만 얻은 **아들**이며, 이러한 연합은 힘차고 완전한, 이 새 창조 성격자를 생산한다.

21:1.2 (235.1) **창조 아들**은 각자 늘 존재하는, 온 우주 **창조자**들의 지성, 무한 · 영원 · 완전한 두 지성이 품은 독창적 개념을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만 얻은 자식, 하나밖에 얻을 수 없는 자식이다. 결코 그와 같이 또 다른 **아들**이 생길 수 없으니, 이는 이 **미가엘 아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뭉쳐진 그 신성한 창조 잠재성에서 온 영원에 걸쳐서 언젠가 발견되고, 그렇게 표현되고, 그로부터 진화될 수 있는, 모든 신다운 실체의 총 가능성, 그 모든 모습의 총 국면을 모두, 각 **창조 아들**이 무조건 완벽하게, 최종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창조 아들**은 각자 그의 신다운 기원을 구성하는, 뭉쳐진 절대적 신 개념의 절대적 표현이다.

21:1.3 (235.2) 이 **창조 아들**의 신다운 성품은, **파라다이스** 부모의 속성으로부터 똑같이 얻는 것이 원칙이다. 모두가 **우주의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과 **영원한 아들**의 창조 특권을 넘치게 가져간다. 그러나 우주에서 **미가엘**의 활동이 실제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건대,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차이를 식별한다. 어떤 **창조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닮았고, 어떤 **아들**은 **아들 하나님**을 더 닮았다. 예를 들면, **네바돈** 우주에서 행정의 경향은 그 창조자이자 다스리는 **아들**의 성품과 특징이, 어머니인 **영원한 아들**을 더 닮은 **아들**인 것을 가리킨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 보이는 **파라다이스 미가엘**들이 어떤 우주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덧붙여야 한다. 이러한 관찰은 어떤 의미에서도 은근한 비판이 아니라, 다만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21:1.4 (235.3) 나는 이미 존재하는 **창조 아들의** 정확한 수를 모르지만, 70만이 넘게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현재, **늘 하나된 이**는 정확히 70만이 있고 그들은 더 창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또한 우리가 지켜보건대, 현재 우주 시대에 예정된 계획은, **늘 하나된 이** 한 분이 각 지역 우주에, **삼위일체**의 상담하는 대사(大使)로서 주둔하기로 예정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듯하다. 게다가, 우리는 항상 늘어나는 **창조 아들의** 수가 이미 **늘 하나된 이**의 고정된 수를 넘는다는 것을 눈여겨본다. 그러나 70만을 넘는 **미가엘**들의 운명에 관하여, 우리는 결코 통지받은 적이 없다.

2. 지역 우주의 창조자

21:2.1 (235.4) 1차 서열의 **파라다이스 아들**은 각자 영토의 설계자요 창조자, 건설자이자 관리자이다. 이 영토는 시공의 지역 우주, 곧 진화하는 일곱 초우주의 기본 창조 단위이다. **창조 아들**은 앞날에 우주 활동을 펼칠 공간의 위치를 고르는 것이 허락된다. 그러나 자기 우주의 물리적 조직을 미처 시작하기 전에, 그가 활동하려고 계획하는 초우주에 자리잡은 여러 우주에서 형들이 노력한 것을 연구하는 데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앞서, **미가엘 아들**은 **파라다이스**를 관찰하고 **하보나** 훈련을 받는 체험, 길고도 독특한 체험을 이미 마쳤을 것이다.

21:2.2 (235.5) 한 **창조 아들**이 우주를 창조하고, 자신이 조직하는 지역 우주에서 우두머리 — 사실상의 **하나님** — 이 되는 모험을 시작하려고 **파라다이스**를 떠날 때, 그때, 그는 자신이 **셋째 근원 중심**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여러 면에서 그에게 의존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다. 만물의 중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거하지만, **무한한 영**은 각 **창조 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수로서 활동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한한 영**의 창조하는 **딸** 하나가 각 **창조 아들**을 따라오며, 그는 **신성한 봉사자**, 새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이 되도록 운명이 정해진 존재이다.

21:2.3 (236.1) 이 기회에 **미가엘 아들**의 출발은, **파라다이스 근원**

중심들이 선재(先在)하는 데 본래 따르는 어떤 제한, 그리고 어떤 다른 선행(先行)하는 권능과 계심에 복종한다는 조건으로, **미가엘**의 창조자 특권을 이 **근원 중심**들로부터 언제까지나 해방시킨다. 지역 우주의 **아버지**로서 창조자의 특권은 다음의 제한 외에는 전능하다:

21:2.4 (236.2) 1. 에너지와 물질은 **무한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크던 작던, 사물의 어떤 새로운 형태가 창조되기 전에, 에너지와 물질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창조 아들**은 **무한한 영**의 찬성과 기초적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

21:2.5 (236.3) 2. 생물의 설계와 형태는 **영원한 아들**의 통제를 받는다. 한 **창조 아들**은 어떤 새 부류의 존재를 창조하고 어떤 새로운 생물의 고안에 착수하기 전에, 어머니인 최초의 **영원한 아들**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1:2.6 (236.4) 3. 성격은 **우주의 아버지**가 고안하고 수여한다.

21:2.7 (236.5) 지성의 종류와 형태는 생물이 되기 전의 존재 요인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 요인들이 결합하여 한 생물을 (성격이든 아니든) 구성한 뒤에, **셋째 근원 중심**이 지성을 부여하며, 그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창조자**들 수준 밑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베푸는 지성 봉사의 보편적 근원이다.

21:2.8 (236.6) **영**의 고안 및 종류에 대한 통제는 고안과 종류가 표현되는 수준에 달려 있다. 결국, 영적 설계는 **삼위일체**의 통제를 받거나, **삼위일체** 성격자들 — **아버지 · 아들 · 영** — 이 가진 **삼위일체** 이전의 영적 자질에 따라서 통제된다.

21:2.9 (236.7) 그러한 완전하고 신다운 **아들**이 그가 선택한 우주의 공간 위치를 차지했을 때, 우주가 물질로 나타나고 대체적 균형을 얻는 초기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가 **무한한 영**의 보완하는 **딸**과 효과적이며 협동하는 안정된 연합을 이루었을 때 — 그때 이 **우주 아들**과 **우주 영**이 연결을 개시하며, 이것은 수없이 많은 무리의 지역 우주 아이들을 낳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파라다이스**에 계신 **무한한 영**이 집중하는 **창조 영**은 성질이 달라지며, 한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성격 기품을 가지게 된다.

21:2.10 (236.8) **창조 아들**은 누구나 **파라다이스** 부모와 신답게 비슷한데도, 아무도 다른 **아들**을 똑같이 닮지 않는다. 각자가 성격만 아니라 **성품**도 독특하고 다양하며, 유일하고 고유하다. 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 계획을 세운 설계자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다양성(多樣性)이 영역 안에서 창조되거나 나중에 진화될지도 모르는 생명, **미가엘**에게서 파생된 생명 존재의 모든 형태와 단계에서 그들의 영토가 또한 다채로울 것을 보장한다. 따라서 지역 우주에서 태어난 서열의 생물은 아주 다채롭다. 모든 면에서 동일한, 이중 기원을 가진 토착 존재가 두 우주를 관리하거나 거기에 사는 일은 없다. 어떤 초우주 안에서도, 그들의 타고난 속성의 절반은 아주 비슷한데, 이 속성이 한결같은 **창조 영**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반은 다양화된 **창조 아들**한테서 유래하니까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은 순전히 **창조 영**에 기원을 가진 생물이나, 중앙 우주나 초우주에서 태어나고 수입(輸入)된 존재들의 특징은 아니다.

21:2.11 (237.1) **미가엘 아들이** 자기 우주에서 자리를 비울 때, 처음에 태어난 토착 존재, 곧 지역 우주의 우두머리 집행자, **밝은 아침별**이 그 정부를 지휘한다. 그러한 때, **늘 하나된 이**의 조언과 상담은 가치를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창조 아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 그리고 필사 자녀들의 가슴 속에 그의 영적 계심의 자세한 통제를 관계된 **어머니 영**에게 맡길 수 있다. 그리고 한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은 언제나 그 본부에 남고, 그러한 진화 영토의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까지 보살피고 영적 봉사를 베푼다.

21:2.12 (237.2) 안정된 물질 우주의 순조로운 운영에는 **창조 아들이** 지역 우주에 친히 계실 필요가 없다. 그러한 **아들들은** **파라다이스**로 여행해도 좋고,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우주는 공간을 통해서 빙그르르 돈다. 그들은 시간 세계의 아이로서 육신화하기 위하여 자기 동력선을 내려놓아도 좋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세계는 각자의 중심을 소용돌이치며 돈다. 어떤 물질 조직도 **파라다이스**의 절대 인력(引力)의 힘이나 또는 **무제한 절대자**의 공간 계심에 본래 있는, 우주의 자세한 통제력을 벗어나지 못한다.

3. 지역 우주의 통치권

21:3.1 (237.3)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찬성을 얻고, 관련된 초우주를 감독하는 **으뜸 영**의 확인을 받고서, **창조 아들은** 한 우주의 범위를 받는다. 그러한 행위는 물리적 소유 권리, 곧 우주의 임차권(賃借權)

이다. 그러나 스스로 제한한 이 초기의 통치 단계에서 스스로 벌어들인 경험적 최상 통치권의 높이까지 **미가엘 아들이** 올라가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육신화로 자신을 수여하는 일로 몸소 겪는 체험의 결과로서 생긴다. 자신 수여로 얻는 통치권을 성취하기까지, 그는 **우주의 아버지의** 대관(代官)으로서 다스린다.

21:3.2 (237.4) **창조 아들은** 언제라도 친히 지은 창조에 대하여 완전한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슬기롭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일에 생물이 되어 자신을 수여하는 일을 마치기 전에, 수고하여 벌지 않은 최상 통치권을 차지하면, 그의 지역 우주에 주둔하는 **파라다이스** 성격자들이 물러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시공의 창조 전체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21:3.3 (237.5) 창조자인 사실은 완전한 통치권을 뜻하지만, **미가엘**들은 통치권을 체험으로 얻기를 선택하며, 이렇게 함으로 지역 우주 행정에 딸린 모든 **파라다이스** 성격자의 완전한 협조를 얻는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은 **미가엘**을 하나도 모르지만, 그들은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고, 참으로 자유 의지를 가진 **아들**이다.

21:3.4 (237.6) 한 지역 우주에서 **창조 아들**의 통치권은 여섯 단계, 아마도 일곱 단계의 체험적 표현을 거친다. 이 여러 단계는 다음 순서로 나타난다:

21:3.5 (237.7) 1. 초기의 대리(代理) 통치권 — 관계된 **창조 영**이 성격의 기품을 얻기 전에, **창조 아들**이 혼자서 임시로 행사하는 권한.

21:3.6 (237.8) 2. 합동 대리 통치권 — **우주 어머니 영**이 성격을 얻고 난 뒤에 그 **파라다이스** 쌍이 합동으로 통치하는 것.

21:3.7 (238.1) 3. 확대되는 대리 통치권 — 한 **창조자**가 일곱 번 생물이 되어 자신을 수여하는 기간에 행사하는 높아지는 권한.

21:3.8 (238.2) 4. 최상 통치권 — 일곱째 수여를 마치고 나서 얻는 안정된 권한. **네바돈**에서 최상 통치권은 **유란시아**에서 **미가엘**의 수여가 끝난 때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는 너희 행성 시간으로 1천9백 년이 조금 넘게 존재해 왔다.

21:3.9 (238.3) 5. 확대되는 최상 통치권 — 사람이 사는 대다수의 영토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됨으로 생겨나는 상급 관계. 이 단계는 너희 지역 우주가 아직 이르지 못한 앞날과 관련된다.

21:3.10 (238.4) 6. **삼위일체**의 통치권 — 지역 우주 모두가 빛과 생명 속에 안정된 뒤에 행사된다.

21:3.11 (238.5) 7. 밝혀지지 않은 통치권 — 미래 우주 시대의 알려지지 않은 관계.

21:3.12 (238.6) 계획한 한 지역 우주를 초기에 대관(代官)으로서 통치하는 권한을 받아들일 때, **창조자 미가엘**은 일곱 번 생물로 자신을 수여하는 일이 끝나고 초우주 통치자들의 인가를 받기 전에 최상 통치권을 쥐지 않겠다고 **삼위일체**에게 서약한다. 그러나 **미가엘 아들**이 수고해서 벌지 않은 그러한 통치권을 멋대로 주장하여 가질 수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데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21:3.13 (238.7) 자신을 수여하기 이전 시대에도, 어느 구석에서도 아무 이견(異見)이 없으면, **창조 아들**은 거의 최상으로 그의 영토를 다스리는 것이다. 통치권이 한 번도 도전받지 않는다면, 통치에 대한 제한은 도저히 겉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반란이 없을 때 한 우주에서 수여 이전에 **창조 아들**이 행사하는 통치권은, 반란이 있는 우주의 경우보다 조금도 크지 않다. 그러나 첫째 경우에는 통치권에 대한 제한이 명백하지 않은데, 둘째 경우에는 명백하다.

21:3.14 (238.8) **창조 아들의** 권한이나 행정이 언제라도 도전받거나, 공격받거나, 위태롭게 되면, 그는 몸소 지은 우주를 지원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하다면 회복할 것을 영원히 서약한다. 오직 자신이 만든 생물이나 자신이 선택한 높은 존재들이 그러한 **아들들**을 성가시게 하거나 괴롭힐 수 있다. 짐작컨대, “더 높은 존재들,” 곧 한 지역 우주보다 높은 수준에 기원이 있는 존재들이 **창조 아들**을 성가시게 할 듯하지는 않고, 이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덕은 성격자가 의지(意志)하여 얻는 것이며, 올바름은 자유 의지를 가진 생물에게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21:3.15 (238.9) 수여 생애를 마치기 전에, **창조 아들**은 스스로 통치권에 어떤 제한을 부과하고서 다스린다. 그러나 자신 수여 봉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는 여러 생물의 형태와 모습을 입고서 실제로 체험한 덕분으로 다스린다. 한 **창조자**가 자기가 지은 생물 사이에서 일곱 번 머무르고 나서, 그 수여 생애가 끝났을 때, 그때 우주 권한이 최상으로 안정된다. 그는 **주 아들**, 군주이자 최고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21:3.16 (238.10) 한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최상 통치권을 얻는 기법은 다음 일곱 가지 체험 단계를 포함한다:

21:3.17 (238.11) 1. 관계된 수준에서 생물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서, 육신화로 자신을 수여하는 방법으로 일곱 가지 생물 수준을 체험으로 거칠 것.

21:3.18 (238.12) 2. **파라다이스 신**의 일곱 가지 의지(意志)가 일곱 **으뜸 영**으로 성격이 된 것 같이, 각 단계에 체험으로 헌신할 것.

21:3.19 (239.1) 3. 일곱 생물 수준에서 각 체험을 거치면서 동시에, **파라다이스 신**의 뜻에 일곱 가지로 헌신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실행할 것.

21:3.20 (239.2) 4. 각 생물 수준에서, 생물의 생명이 어느 높이까지 이를 수 있는가 **파라다이스 신**과 모든 우주 지성 존재에게 체험으로 보여줄 것.

21:3.21 (239.3) 5. 각 생물 수준에서, **신의** 일곱 가지 뜻의 한 단계를 그 수여 수준과 온 우주에게 체험으로 나타낼 것.

21:3.22 (239.4) 6. 일곱 번 생물의 체험을, **신의** 성품과 뜻을 계시하는 데 헌신하는 일곱 가지 체험과 조화시킬 것.

21:3.23 (239.5) 7. **최상 존재**와 새롭고 더 높은 관계에 도달할 것. 이 창조자인 생물이 겪는 총 체험의 영향은 초우주에서 **최상위 하나님의** 현실성과 **전능 최상위**의 시공 통치권을 확대하며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최상 통치권을 사실로 만든다.

21:3.24 (239.6) 한 지역 우주에서 통치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조 아들**은 자신이 다스릴 체력이 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파라다이스 신들**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들의 일곱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가 제일 높은 것을 유한자가 이해하고 생물이 인식하는 것은, 한 **창조 아들**이 황송하게도 자기가 지은 생물의 모습을 입고 체험을 겪을 때 그 **아들**이 부딪치는 모험과 관련된다. 이 1차 **파라다이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품과 자비로운 권한을 참으로 계시하는 자이며, 바로 이 **아버지**는 **아들**과 **영**과 연합하여, 모든 우주 영역에 두루, 모든 권능 · 성격자 · 정부의 보편적 우두머리이다.

4. 미가엘의 수여

21:4.1 (239.7) 자신을 수여하는 **창조 아들**은 일곱 집단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영역에 사는 생물에게 몇 번이나 자신을 수여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된다. 그들의 범위는 초기의 체험을 비롯하여, 그 뒤에 점진적으로 자신을 수여하는 다른 다섯 구체를 지나서, 일곱째이자 마지막 사건, **창조자**이자 인간으로서 체험하는 사건에까지 이른다.

21:4.2 (239.8) **아보날** 수여는 반드시 필사자 육체의 모습을 입는다. 그러나 **창조 아들**의 일곱 수여는 일곱 가지 생물 수준의 존재로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며, **신의 뜻**과 성품의 일곱 가지 주요한 표현을 계시하는 데 관한 것이다. 예외 없이, **창조 아들**은 모두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대하여 안정된 최고 관할권을 떠맡기 전에, 그들이 창조한 아이들에게 자신을 일곱 번 주는 체험을 거친다.

21:4.3 (239.9) 이 일곱 번의 수여는 다른 구역과 우주에서 달라지지만, 반드시 필사자로 수여하는 모험을 포함한다. 마지막 수여가 있을 때 **창조 아들**은 사람이 사는 어떤 세계에서, 한 상급 필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보통은 동물 기원을 가진 민족들의 신체적 지위를 향상하려고 이전에 수입(輸入)된 **아담** 혈통의 유전 흔적을 가장 많이 품는 민족 집단의 한 사람으로서 나타난다. **베들레헴**의 아기에 대하여 너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다시피, 수여 **아들**로서 일곱 생애에서 꼭 한번,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다. 그는 오직 한번, 의지를 가진 진화 인간, 가장 낮은 계급의 한 사람으로서 살다가 죽는다.

21:4.4 (239.10) 각 수여가 끝난 뒤에, **창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 편”까지 나아가서, 거기서 그 수여에 대하여 **아버지**의 인가를 얻고, 우주에서 봉사하는 다음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침을 받는다. 일곱째이자

마지막 수여가 있고 나서, **창조 아들은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우주에 대하여 최고의 권한과 관할권을 받는다.

21:4.5 (240.1) 너희의 행성에 지난번에 나타난 신다운 **아들이**, 여섯 단계의 수여 생애를 이전에 마친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유란시아**에서 육신화한 일생에서 의식하는 힘을 버렸을 때, 그는 참으로 “다 이루었다”하고 말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말했다 — 글자 그대로 마쳤다. **유란시아**에서 그의 죽음은 수여 생애를 끝냈고, 이것은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의 신성한 서약을 지키는 마지막 걸음이었다. 이 체험을 얻었을 때, 그러한 **아들은** 그 우주의 최상 군주가 된다. 그들은 이제 더 **아버지**의 대관(代官)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과 이름으로 “가장 높은 임금이요, 가장 높은 주”로서 다스린다. 일곱 차례 자신 수여를 마친 이 **아들**들은, 진술한 어떤 예외를 빼고, 그들이 사는 우주에서 아무 제한 없이 최고이다. 그의 지역 우주에 관하여 말하자면, 승리를 거두고 보좌에 앉은 이 **주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이 넘겨진 것이다.

21:4.6 (240.2) **창조 아들은**, 수여 생애를 마치고 난 뒤에, 따로 된 계급, 곧 칠중의 **주 아들**로 간주된다. **주 아들**의 몸은 **창조 아들**과 동일하다. 그러나 아주 독특한 수여 체험을 겪었기 때문에, 보통은 다른 계급으로 여겨진다. **창조자**가 황송하게도 자신 수여를 실행할 때, 진정하고 영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다. 수여 **아들은** 아직도, 여전히 **창조자**인 것이 참말이지만, 한 인간의 체험을 그의 성품에 보탬고, 이것은 언제까지나 그를 **창조 아들**의 신성한 수준에서 제쳐 놓고, 한 우주를 다스리고 그 안에 있는 세계들을 관리할 권한을 충분히 얻은, **주(主) 아들**의 체험 수준으로 들어올린다. 그러한 존재들은 신성한 부모로부터 따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에 담고, 완전해진 인간의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에 안고 있다. 바로 그 신들도 자기의 우주 영토를 마침내 완전히 다스리기에 체험적으로 자격 있고 유능하다고 생각되기 전에 대등한 체험을 겪어야 하는 마당에, 사람이 어째서 그의 비천한 기원과 부과된 진화 생애를 슬퍼해야 하는가!

5. 주 아들과 우주의 관계

21:5.1 (240.3) **주 미가엘**의 권력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체험을 거친 관계에서 얻었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며, 그러한 권한에 지배되는 바로 그러한 여러 생물로서 사는 실제 체험에서 얻었기 때문에 도전받지 않는다. 칠중의 **창조 아들**의 통치권은 최상급의 성질을 가졌으니, 그 이유는 그 통치권이:

- 21:5.2 (240.4) 1. **파라다이스 신**의 일곱 가지 관점을 포함하고,
21:5.3 (240.5) 2. 시공(時空) 생물의 일곱 가지 태도를 몸에 담고 있으며,
21:5.4 (240.6) 3. **파라다이스**의 태도와 생물의 관점을 완전히 통합하기 때문이다.

21:5.5 (240.7) 따라서 이 체험적 통치권은 궁극에 **최상 존재**에 이르는, **칠중 신**의 신성을 다 포함한다. 칠중 **아들**의 개인 통치권은, 언젠가 완성될 **최상 존재**의 미래 통치권과 같으며, 후자와 마찬가지로, 관계된 시공 한계 안에서 표현될 수 있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힘과 권한, 가능한 최대의 내용을 포함한다.

21:5.6 (240.8) 지역 우주의 최상 통치권을 얻고 나서, 그 **미가엘 아들**에게서 현재 우주 시대에 전혀 새 종류의 생물 존재를 창조할

권력과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한 **주 아들**이 전혀 새로운 계급의 존재를 창시(創始)할 권력을 잃는 것은, 이미 자리잡고 전개되는 과정에 있는 생명을 다듬는 일을 조금도 막지 않는다. 우주를 진화시키는 이 방대한 계획은 간섭이나 단축 없이 진행된다. 한 **주 아들**이 최상 통치권을 얻는 것은, 이미 고안되고 창조된 것, 그리고 그렇게 고안되고 창조된 자들이 차후에 생산할 것을 기르고 관리하는데 몸소 헌신할 책임이 있음을 가리킨다. 시간이 지나면, 다양한 존재들이 거의 끝없이 진화될지 모르지만, 그후부터 전혀 새로운 원본이나 형태의 지적 생물이 **주 아들**에 직접 기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느 지역 우주에서도 안정된 행정의 첫 걸음이요 시작이다.

21:5.7 (241.1) 일곱 번 자신을 수여한 **아들**이 자신의 우주에서 도전받지 않는 통치권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확실하고 비교적 혼란했던 오랜 세월의 끝이 시작됨을 뜻한다.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언젠가 영답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은 궁극에 해체될 터이고, 언젠가 우주 실체와 조정될 수 없는 것은 궁극에 없어질 것이다. 그 영역에 의지를 가진 인간의 충성과 헌신을 얻으려는 노력으로 비축해둔, 끝없는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인내가 소모되고 나면, 응보와 공정(公正)이 지배할 것이다. 자비가 구제할 수 없는 것은 응보가 궁극에 말소(抹消)할 것이다.

21:5.8 (241.2) **주 미가엘**은, 군주 통치자로 일단 취임하고 나서, 자신의 지역 우주에서 제일 높다. 그들의 통치에 부과된 몇 가지 제약은 어떤 물력과 성격자들이 우주에 선재(先在)한 사실에 본래부터 생기는 것들이다. 이 외에, 이 **주 아들**의 권한, 책임, 행정 권력은 각자의 우주에서 제일 높다. 그들은 창조자요 **하나님**으로서, 거의 모든 일에

제일 높다. 한 주어진 우주의 작용에 관해서, 그들의 지혜는 아무도 꿰뚫어볼 수 없다.

21:5.9 (241.3) 한 지역 우주의 통치권이 안정되고 난 뒤에, **파라다이스 미가엘**은 그의 영토에서 활동하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 완전히 장악하며, 그 영역의 필요에 대한 자신의 생각대로 자유롭게 다스려도 좋다. **주 아들**은 사람이 사는 행성에서 영적 심판의 차례와 진화적 조정의 순서를 뜻대로 바꾸어도 좋다. 그리고 그러한 **아들들**은 행성의 특별한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특히 그들이 생물로 머물렀던 세계들에 관하여, 더군다나 최종으로 자신을 수여한 영역, 곧 필사 육체의 모습으로 육신화한 행성에 관하여, 자신이 고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21:5.10 (241.4) **주 아들들**은 자신을 수여한 세계, 그들이 몸소 머무른 세계만 아니라 **심판 아들**이 자신을 수여했던 모든 세계와도 완전히 교통이 있는 듯하다. 그들 자신의 영적 계심, 곧 **진실의 영**이 이러한 연락을 유지하는데, 그들은 이 영을 “모든 육체에 퍼부을” 수 있다. 이 **주 아들들**은 또한 만물의 중심에 계신 어머니, **영원한 아들과**도 끊임없는 연결을 유지한다. 위로 **우주의 아버지**로부터, 시간 영역에서 행성 생명의 비천한 민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동정하는 마음이 미친다.

6. 주 미가엘의 운명

21:6.1 (241.5) 지역 우주를 다스리는 칠종의 **주 군주들**의 성품이나 운명에 관하여 아무도 최종 권한을 가지고 주제넘게 논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모두 많이 추측해 본다. 각

파라다이스 미가엘이 그의 기원이 있는 이중 신 개념의 절대적 표현이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다고 믿는다. 따라서 그는 **우주의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의** 무한성의 여러 실제 단계를 몸으로 나타낸다. **미가엘**들은 총 무한과 비교해서 부분적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 기원에 관련된 그 부분의 무한과 아마도 절대적 관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주 시대에 그들이 하는 일을 지켜보건대, 우리는 유한을 넘는 활동을 하나도 찾지 못한다. 유한을 넘는 어떤 예상된 능력도 독립되어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음이 틀림없다.

21:6.2 (242.1) 생물로서 자신을 수여하는 생애를 마치고 최상의 우주 통치권의 높이로 승진하는 것은 **미가엘**의 유한한 활동 능력이 완전히 해방되고, 그에 뒤따라 유한을 넘는 봉사 능력이 나타남을 뜻하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주 아들**들은 그때 새로운 종류의 생물 존재를 생산하는 것이 금지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기 때문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이 제한은 유한을 뛰어넘는 잠재성을 해방함으로 필요하게 된다.

21:6.3 (242.2)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창조자 권능이 현재 우주 시대를 통하여 죽, 잠자코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히 있음직하다. 그러나 아주 먼 앞날에 언젠가, 지금 바깥 공간에서 동원되는 여러 우주에서, 칠중의 **주 아들**과 일곱째 단계에 있는 **창조 영**의 결합은 초한(超限) 수준의 봉사에 이르고, 궁극의 우주 중요성을 가진 초월 수준에서, 새로운 사물 · 의미 · 가치의 출현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21:6.4 (242.3) 체험으로 봉사하는 덕택으로 **최상위 신**이 현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 아들**들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들의 성품에 단단히 싸여 있는 **파라다이스 신**의 잠재성을 몸소 실현하는 일을 해내고 있다. **유란시아**에 있을 때, **그리스도 미가엘**은 한때, “나는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원 속에서, 최상의 신성(神性)으로부터 궁극의 초한을 거쳐서, 영원한 신의 최종까지 인도하는 길을 모든 우주 성격자를 위하여 언제나 불빛으로 비추면서, **미가엘**들이 글자 그대로 “길이요 진실이요 생명”이 되도록 정해져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21:6.5 (242.4)

[**유버르사**에서 온 한 **지혜 완성자**가 발표하였다.]